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

- 노동부는 '09.11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으며,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2.6%(172.3만명), 도입 사업장 수는 13.0%(6.7만개소)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발표함.
 - '09.11월 월별 순계로는 가입자 20만명, 적립금 9천억원, 도입 사업장 3천개소로 이전년도 대비 퇴직연금 확산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 - 현재의 확산 속도는 세제 혜택을 위한 신규 도입 및 부담금 납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며, 12월 가입현황 등을 포함하면 2009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14~1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임.

-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4.2%(5.6조원), 전체 가입근로자의 60.7%(104만명)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.
 - 보험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.5조원(생보:2.9조원, 손보: 0.6조원)으로 전체 시장의 34.0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가입근로자 수는 25.2%(생보:35만명, 손보:8만명)로 나타남.
 - 이 외에도 증권사의 적립금 규모는 1.2조원이며, 가입근로자 수는 24만명을 기록함.

- 노동부는 OECD 보고서(OECD, Private Pension Outlook, 2008)에 기초할 때 OECD 국가의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이 GDP의 약 111%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7.9%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임.
 - 이에 퇴직연금 수요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,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 양적·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'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'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임.

(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, 노동부 임금복지과, 1/5)